

근대의 기억 표상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

근대로의 열망, 근대적 통제의 기제,
그리고 정치적 경합의 장

정헌주

제1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정치학 전공
heonjoojung@yonsei.ac.kr

태지호

교신저자,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영상매체학 전공
tae7675@anu.ac.kr

- I. 머리말
- II. 기억의 공간과 〈서대문독립공원〉에 관한 논의들
- III. 〈서대문독립공원〉을 둘러싼 근대성의 실천들
- IV. 맺음말: 근대의 기억 표상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

I. 머리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 한국사회는 광복·해방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에 관한 대내외적 갈등의 중심에 있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아베정권이 1945년과 그 이전의 기억을 새롭게 서술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사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은 영토분쟁이라는 또 다른 과거의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증폭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광복 70주년은 동시에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 70년 전 광복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많은 것들이 미완의 상태인 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광복에 대한 기억이 현실 정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광복이 일제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분단과 이념 논쟁, 본격적인 근대적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 그리고 사회·문화·교육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근대성이 교차하는 변곡점(變曲點)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5년 현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기억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¹⁾

〈서대문독립공원〉은 이러한 해방·광복의 상징이자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서대문형무소〉의 ‘유명세’로 인해 〈서대문독립공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대문독립공원〉은 〈서대문형무소〉뿐만 아니라 구한말,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에 관한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이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서대문독립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근대성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기억의 문화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 ‘역사’가 아닌 ‘기억’을 통해 이를 논의하는 것은 객관성을 추구하는 ‘역사’ 개념과 달리 ‘기억’ 개념은 과거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와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기억 개념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은 ‘무엇 혹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 그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밝혀내기 위한 작업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역사라는 ‘객관

1) 《경향신문》, 2015년 10월 12일자; 《조선일보》, 2015년 10월 10일자.

적 진리 규범 속에서, 어떻게 기억의 범주가 규정되고, 이에 따라 전제와 내용이 통제되며, 이에 관해 다양하게 경합하는 문화적 상징들이 형성·공유되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기억 개념은 해당 사회에 드러나 있는 과거에 대한 표상을 통해 그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이나 규율체계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억과 정치 사이의 동학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과거는 현재를 위한 신화적인 정당화로 재구성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즉,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어떠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억 그 자체가 정치적 현상이며, 따라서 중요한 정치적 이해를 고려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²⁾

현재의 정치적 전략과 맞물려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이라는 공간 재현은 기억의 정치학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서대문독립공원〉이라는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과거가 선택되어 재현되는가, 재현 전략은 무엇인가, 재현의 건립 및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재현을 통한 담론 형성과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에 대한 문화적인 재현들을 기억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한 질문들이자, 기억의 정치를 과정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서대문독립공원〉의 경우, 일제가 폭압적인 통치를 위해 세운 〈서대문형무소〉가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치욕의 과거를 기억하고 희생된 이들에 대한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 재현들 중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과거가 해당 사회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상흔의 과거라면, 이는 특별한 상징으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훈과 계몽의 관점에서 사회적 치유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억의 정치학적 입장에서 그러한 교훈과 계몽은 어떠한 권력 작용과 맞물려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적 치유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보편적인 차원의 도덕, 윤리, 인도주의 등의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구체화의 과정에서는 과거에 대한 ‘역사’ 인식,

2) 허버트 허시 저, 강성현 역,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책세상, 2009), 31-32쪽.

공간적 맥락, 해당 지역의 정치, 사회적 제도와 정책, 경제 및 산업적 기능과 가치, 도시 및 공간의 설계와 디자인 등의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서대문독립공원〉보다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초점을 두고 역사관의 역사, 의의, 효과, 재현방식 등의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즉,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이를 둘러싼 〈독립문〉, 독립관, 순국선열추념탑 등의 다른 공간들과 격리 혹은 탈각되어 설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대문독립공원〉을 과잉대표하고 있다. 반면 〈서대문독립공원〉이 투시하는 상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 글에서는 근대로의 열망, 근대의 기제, 근대적 공론장과 정치적 실천의 공간적 표상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이유는 〈서대문독립공원〉의 현 모습의 기원이 되는 때가 〈독립문〉의 건립인 1897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1897년은 대한제국이 선포됨과 동시에 열강들의 국권 침탈과 같은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1894년의 갑오개혁부터 시작된 당시 조선의 변화상은 근대로의 진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봉건제 탈피와 민족국가의 건설, 국제적으로는 웨스트팔리아적(Westphalia)의 미의 국제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대두된 당대의 보편성에 대한 열망으로서의 근대인 것이다. 즉,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제시되는 이성, 경험주의, 진보, 개인주의, 자유 등과 같은 근대성의 특징들이 이 공간에서 발현된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경제성장, 정치적 민주화 등과 같은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의 근대성은 〈서대문독립공원〉을 통해 특수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기억의 공간과 〈서대문독립공원〉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독립공원의 역사와 부활의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근대로의 열망으로서 독립공원이 상징하는 바를 살펴본다. 이어서 근대적 통제의 기제로서 형무소, 역사관, 축제 등을 분석하고, 〈서대문독립공원〉이 어떻게 기억투쟁과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서 작용하는지를 논한다. 맺음말에서 이 글의 함의를 제시한다.

II. 기억의 공간과 〈서대문독립공원〉에 관한 논의들

1. 기억의 공간 정치학에 대한 연구들

기억과 문화적 실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억 자체는 추상적이고 인식론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그 문화적 실천은 다양한 내용과 방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의 문화적 실천 혹은 기억의 정치에 대한 논의는 특정 분과학문의 차원에서 다루이지 않고, 여러 분과학문의 이론적·방법론적 개념과 전통을 넘나든다. 이 글에서 다루는 기념공원, 역사관, 박물관 등과 같이 공간에서 재현되는 과거와 이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논의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공간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는 도상성, 양식성, 표현 등에 관한 문화적 재현 연구이며, 둘째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억과 공간의 상호작용 및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 연구이다.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과거에 대한 재현이 공간에서 이뤄질 때 나타나는 수사학과 구성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³⁾ 이들은 주로 특별한 방식의 문화적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공간에 접근하며, 특히 문화적 체계의 상징이나 도상성, 조형미, 의미화 방식 등에 집중한다. 김형곤은 한국전쟁 기념관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 기억의 재현이 가지는 의미를 다룬다.⁴⁾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 기억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구속력 혹은 특정한 사회적 서사와의 관계와 같은 기억의 실천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손은하와 공운경은 지역에서 상징물과 조형물이 과거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구성되며, 그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구축되는 방식을 마산시

3) Bruno, Giuliana, "Havana: Memoirs of Material Culture," *Journal of Visual Culture*, Vol. 2, No. 3 (2003), pp. 303-324; Phillips, Kristina K., *A Museum for the Nation: Publics and Politics at the National Museum of India*,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2006); Dickinson, Greg, Carole Blair, and Brian L. Ott, *Places of Public Memory: The Rhetoric of Museums and Memorials* (Tuscaloosa: University Alabama Press, 2010).

4) 김형곤,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0호(2007), 192-220쪽.

의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⁵⁾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 실천으로서 상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성을 내포하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즉, 이러한 논의들은 문화적 재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진행하지만, 기억의 사회성이나 과거의 재현이 당대의 정치적 전략 및 권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두 번째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억들 간의 갈등, 기억과 권력의 문제 등과 같은 기억의 정치학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에 관한 논의이다.⁶⁾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공간의 재현은 그 자체가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효과와 문화적·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최정기는 5·18기념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기념공간이 기억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기념공간이 제기하는 문제가 현재적 차원에서 소통의 일환으로 해석되는가, 그리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논의한다.⁷⁾ 원도연은 기억을 지역과 생활사라는 관점에서 다루면서,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은 민중성, 향토사,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통해 현재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논의한다.⁸⁾ 과거에 대한 공간의 재현을 특별한 기억의 구성체로 분석한다는 것은 해당 공간을 통해 현재의 기억 갈등 및 쟁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긴장관계 및 의미를 포함하는 기억의 정치적 지형을 분석함을 의미한다. 학살과 전쟁의 과거에 대한 공간적 재현을 다루는 김백영과 김민환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거창양민학살사건’이라는 과거를 둘러싼 진실의 정치학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사회적 기억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거창사건추모공원>이라는 공간적 재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문화적 재현이 내포하는 담론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⁹⁾ 태지호와 정헌주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중국의

5) 손은하·공윤경, 「상징 조형물과 상징공간에 이미지화된 지역성-마산의 '민주화의 성지'와 '문학의 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17호(2010), 419-446쪽.

6) Rowe, Shawn M., James V. Wertsch, and Tatyana Y. Kosyaeva, "Linking Little Narratives to Big Ones: Narrative and Public Memory in History Museums," *Culture and Psychology*, Vol. 8, No. 1(2002), pp. 96-112; 정호기, 「전쟁 상흔의 치유 공간에 대한 시선의 전환」,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3호(2008), 183-212쪽.

7) 최정기, 「5·18기념공간과 사회적 갈등-기념공간 관련 논쟁 및 갈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2008), 51-78쪽.

8) 원도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회성과 기념공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제1호(2007), 261-288쪽.

〈항미원조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전쟁의 기억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¹⁰⁾ 이러한 논의들은 과거에 대한 공간의 재현을 문제화함으로써 공간을 담론적으로 바라보며, 그에 따른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의지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해당 공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그 문화적 실천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기억과 공간에 대한 문제는 기억의 문화적 재현 혹은 기억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기억들의 산물 혹은 기억들 간 투쟁의 결과물로 분석되어왔다. 하지만 공간은 그 자체가 과거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실천의 장이며, 동시에 사회적 행위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경합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억과 공간의 문제는 좀 더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억’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사회성을 동태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서대문독립공원〉에 대한 연구들

〈서대문독립공원〉에 대한 기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일본제국 주주의 억압적 기제로서 〈서대문형무소〉를 분석하고, 억압과 통제, 이에 대한 불굴의 저항이 역사관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기억의 재현에서 해방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정권,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권위주의정권의 탄압이 망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문환은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국가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과잉 민족주의”의 경향을 비판하는 동시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유공자와 해방 이후 투옥된 인사들에 대하여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¹¹⁾

9) 김백영·김민환, 「학살과 내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거창사건추모공원의 공간 분석」, 『사회와 역사』 제78집(2008), 5-33쪽.

10) 태지호·정현주,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을 통해서 본 한국전쟁의 기억과 정치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4호(2014), 297-317쪽.

11) 여문환,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한·중·일 전쟁기념관을 가다!』(한국학술정보, 2009), 74-77쪽.

또한 〈독립문〉과 독립관, 독립공원의 변천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 신용하와 김세민은 조선시대 사대주의의 상징이었던 영은문과 모화관이 19세기 말 〈독립문〉과 독립관으로 대체되는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누가, 왜, 어떻게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을 설치하였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¹²⁾ 마지막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수용태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류현중은 초등학생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체험학습을 통해 공시적 기억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¹³⁾ 이은지 외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형무소역사관 방문객들의 만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⁴⁾

기존 연구는 대부분 〈서대문독립공원〉이라는 공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채 〈서대문형무소〉라는 공간에 치중하고 있으며, 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물론 역사적 접근을 통한 사료의 발굴과 해석 및 이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로서 큰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실천으로서 공간의 재현은 해당 공간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대문독립공원〉과 같은 과거에 대한 재현 공간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힘과 의지’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마스(Nicholas Thomas)는 이러한 공간 자체는 물론 공간의 재현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물, 기술, 구성물들이 계속해서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문화적 맥락이 통과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의 문제를 강조한다.¹⁵⁾ 이는 공간적 재현과 해당 과거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과 역학관계를 분석하면서 기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양병일은 이러한 점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상징을 분석함과 동시

12) 신용하,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의 건립과 변천」, 『향토서울』 제59권(1999), 77-105쪽; 김세민, 「迎恩門, 慕華館의 건립과 獨立門, 獨立館으로의 변천」, 『향토서울』 제82권(2012), 141-178쪽.

13) 류현중, 「역사적 장소 학습과 과거 기억의 문제-초등학생들의 역사적 장소 재현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2호(2005), 177-219쪽.

14) 이은지·조철호·박혜정, 「다크투어리즘 서비스경험이 방문객의 방문효과, 만족에 관한 연구-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7호(2012), 2999-3018쪽.

15) Thomas, Nicholas, *Entangled Objects: Exchange, Material Culture, and Colonialism in the Pacific*(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에 〈서대문독립공원〉의 조성과정에서 〈서대문형무소〉와 이 일대를 스펙터클하게 만들고 “근사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주입”하려는 서대문구의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¹⁶⁾

〈서대문독립공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서대문형무소〉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초점을 두어서 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 대한 분석을 봉쇄하고 있다. 즉,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포함하고 있는 〈서대문독립공원〉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상상”되고 “재구성”되어 과거에 대한 기억을 구축하고 강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대문형무소〉를 재맥락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서대문독립공원〉이라는 현재의 ‘제도’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연구의 틀을 근대성의 실천들로 설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겠지만, 이 글은 〈서대문독립공원〉이 근대적 개인들의 권리를 위한 휴머니티와 민의라는 개념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개인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메커니즘이 구한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서대문독립공원〉이 재현하는 과거를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기념 공간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이 표상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그러한 맥락과 표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대성의 실천들은 어떻게 나타나며, 이는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어떻게 기억되며 공존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Ⅲ. 〈서대문독립공원〉을 둘러싼 근대성의 실천들

1. 근대로의 열망: 〈서대문독립공원〉의 역사와 부활

〈서대문독립공원〉은 공간적 위치 자체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독립문〉(사적 제32호)은

16) 양병일, 「서대문형무소의 상징 읽기」, 『사회와 교육』 제45권 제4호(2006), 73-74쪽.

사대외교의 상징이었던 영은문(迎恩門)이 철거된 자리에 1897년 11월 건립되었고, 영은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중국 사신들을 위한 축하연회를 베풀기 위해 만들어졌던 모화관(慕華館)은 개수되어 1897년 5월부터 독립관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독립문>과 독립관 일대는 1897년 7월부터 독립공원으로 조성되었다.

19세기 말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의 설립 배경에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청·일·러 등 주변 강대국들의 내정간섭이 조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자주독립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개혁주의자들의 결의와 대중적 지지가 있었다. 당시 <독립문> 건립을 위해 보조금을 헌납한 사람들에게는 왕태자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 이외에도 다수의 일반시민, 지식인, 농민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 5,000-6,000명 정도가 참여하였다는 점은 <독립문>의 건립에 대한 당시의 열망을 보여준다.¹⁷⁾

이렇듯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은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된 공간이다. 사대주의라는 전통을 씻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후세가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건립된 이들은 근대를 상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독립문>을 영은문 주초보다 북쪽에 세우고, 남쪽 방향의 현판에는 한글로, 북쪽 방향의 현판에는 한문으로 <독립문>을 표기한 이유 역시 북쪽에 위치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독립문> 건립이 확정된 직후 1896년 6월 20일자 《독립신문》 논설에 따르면, “남의 나라들은 승전을 한다던지 국가에 큰 경사가 있다던지 하면 그 자리에 높은 문을 짓는다던지 비를 세우는 풍속이라. 그 문과 그 비를 보고 인민이 자기 나라의 권리와 명예와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고 더욱 튼튼히 길러 후생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자는 뜻이요. 또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 인민의 애국하는 마음을 보이자는 표”라고 그 건립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¹⁸⁾ 《독립신문》이 독립협회의 기관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17) 신용하, 앞의 논문, 80-88쪽. 1915년 당시 서울 인구는 24만 명을 조금 상회하였다.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서비스 홈페이지(검색일: 2015. 8. 25).

18) 위의 논문, 82쪽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인 1897년 <독립문>의 완공시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11월 20일경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독립신문》이나 기타 자료에도 정확한 완공일을 알리는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퀴스테르(Koen de Ceuster)에 따르면, 1년 만에 식어버린 <독립문> 건립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당시 독립협회 내의 정치적 단합이 약해지고, 협회가 국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조직이익을

사실 내용은 〈독립문〉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독립문〉의 건립은 ‘국가의 자주독립국 됨’이라는 큰 경사를 기리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함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의 상징으로서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은 당대의 근대성을 표현했어야 했다. 앞의 시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의 나라들’의 풍속에 대한 동경은 〈독립문〉의 건설과 독립공원의 조성과정에서 잘 드러나 있다. 조선 최초의 미국국적자인 서재필(필립 제이슨)이 프랑스 파리 개선문의 모양을 모방하여 기본설계를 하고, 러시아인 사바틴(Sabatin)이 세부설계도를 작성하고, 다수의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에 참여하여 만들어진 〈독립문〉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할 수 있는 근대적인 것이어야 했다.¹⁹⁾ 독립공원 역시 인천의 만국공원(현재 자유공원), 파고다공원과 더불어 최초의 근대적 공원으로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규모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의 쉼터 역할을 위해 건립된 서구의 공원과는 달리 산업화 및 도시화에 선행하여 조성된 독립공원은 근대의 산물이 아닌 근대에 대한 열망의 산물이었다.²⁰⁾ 이러한 점에서 〈독립문〉과 독립공원의 건립은 서구적 근대문명에 대한 동경이 짙게 스며들어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문〉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매우 급속하게 변하였다. 1908년 10월 일본 통감부에 의해 경성감옥이 신축되고, 독립관과 독립공원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독립문〉을 둘러싼 공간은 친청(親淸)의 공간에서 독립의 공간으로의 변화가 무르익기 전에 친일의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경성감옥 신축과 더불어 일제는 〈독립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주변을 철책으로 둘러쌌다.²¹⁾ 또한 독립공원은 처음부터 자금부족으로 제대로 건립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립관은 통감부 말기부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활용되면서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이후 통감부 중학교, 송병준 소유의 연초제조소 회사, 동광사 창립사무소,

대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독립문〉은 국가적 상징이 아닌 독립협회의 상징에 불과하게 되었다. Ceuster, Koen de, "The Changing Nature of National Icons in the Seoul Landscap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3, No. 2(2000), p. 84.

19) 김태중, 「개화기 궁정건축가 사바틴에 관한 연구 고용경위와 경력 및 활동환경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제12권 제7호(1996), 107-119쪽; 김세민, 앞의 논문, 157-158쪽.

20) 당시의 사진을 보면, 〈독립문〉 주변 지역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원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보인다.

21) 김세민, 앞의 논문, 160쪽.

홍업농업주식회사 등으로 사용되다가 1928년 경성실업전수학교가 독립관 건물을 사용하였으며, 1935년경 철거되고 그 공간은 주택지로 분양되었다.²²⁾ 〈독립문〉은 한때 철거 위기가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그 의미는 축소되어 외세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청나라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뿐이었다.

〈서대문독립공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해방 후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효율성의 추구이다.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때로는 매우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독립문〉을 중심으로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독립공원은 그 공간적 의미를 상실하였고, 〈독립문〉 역시 차로로 둘러싸여 사람들의 접근이 원천봉쇄되었다. 또한 1979년 정부는 성산대로 건설과정에서 사직터널과 금화터널을 연결하기 위해 현 저고가차도(현 〈독립문〉고가차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²³⁾ 〈독립문〉이 본래 위치하였던 곳을 표시한 표지동판은 현재 통일로와 성산로 교차지점의 도로 한 복판에 있는 맨홀 아래에 묻혀 있다.²⁴⁾ 이렇듯 경제성장과 도시공학적인 효율성, 권위주의라는 이름 아래 〈독립문〉과 이를 둘러싼 공간은 폭력적으로 재편되었다.

식민지하에서의 제한된 근대화와 해방 이후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잊혔던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이 표상하였던 근대로의 열망은 1990년대에 기억되고 기념되기 시작하였다. 그 계기는 1987년 서대문형무소(당시 서울구치소)를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신용하에 따르면, 1988-1989년 당시 그는 이 공간을 ‘근린공원’을 위한 공간에서 ‘역사공원’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기획의 책임연구자로서 “옛 ‘독립공원’을 대전제로 하고 ‘서대문형무소’의 ‘서대문’과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모두 종합하여 ‘서대문 독립공원’이라고 제안하였다.”²⁵⁾

22) 김정동, 「심의석이 세운 〈독립문〉과 독립관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2010), 124쪽.

23) 고가도로 건설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한홍구, 『한홍구와 함께 걷다』(김동소, 2009), 111-112쪽.

24) 《오마이뉴스》, 2004년 2월 23일자.

25) 신용하, 앞의 논문, 101쪽.

1992년 8월 15일 개원한 <서대문독립공원>은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열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²⁶⁾ 사실 <서대문독립공원>을 구성하는 여러 공간, 건축물과 기념비 중에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새롭게 건립된 순국선열기념탑, 서재필 동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된 것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독립문> 앞에 자리 잡은 영은문 주초(사적 제33호)는 원래 서대문 밖에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1539년에 세워졌으나 1895년 2월(고종 32년) 주춧돌 2기를 남기고 철거되었다. 이후 1934년 원래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옮겨져 <독립문> 앞에 세워졌으나, 1979년 성산대로 공사 때문에 현재의 위치로 다시 옮겨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독립문>과의 거리가 훨씬 가깝게 배치되었다. <독립문>(사적 제32호) 역시 1979년 원래의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약 70m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3·1 독립선언기념탑 역시 1963년 8월 15일에 국민의 성금으로 3·1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던 탑골공원에 세워졌으나, 1979년 공원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후 12년간 삼청공원 등에 방치되었다가 복원의 목소리에 따라 1992년 서대문으로 옮겨졌다.²⁷⁾ 옆에 자리 잡은 독립관 역시 원래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고 환송하였던 “모화관”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894년 갑오경장 뒤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897년 5월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다.²⁸⁾ 이것은 개화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원래 위치는 현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350m 떨어진 곳이었으나, 옛터로 “추정되는” 현재 위치에 복원되어 순국선열들의 위패 봉안과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다.²⁹⁾

이렇듯 복원된 독립의 공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성역화되어 성지로서의 자격(status)을 획득하였다. 특히 <서대문형무소> 부지는 1992년 개원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고 시민들의 유물 훼손과 기물 파괴, 10대 청소년들의 탈선행각 등으로 본래의 의도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 <서대문형무소>는 독립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26) 1992년 8월 15일 <서대문독립공원>의 개원과 동시에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총 72곳의 부실공사가 적발되어 관계자가 처벌되었다는 점은 공원 조성의 과정 역시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아일보>, 1992년 9월 3일자.

27) <중앙일보>, 1990년 3월 6일자; 서대문독립공원 홈페이지(검색일: 2015. 8. 20).

28) 국내 독립운동, 국가수호 사적지 홈페이지(검색일: 2015. 10. 3).

29) 신용하, 앞의 논문, 101쪽.

기보다는 반정부인사들 이외에도 다양한 범법자들을 수감하였던 〈서울 구치소〉의 이미지가 강하였다는 맥락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반민족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일탈적인 행위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1995년부터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대문형무소〉 등 사적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은 1998년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개관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새롭게 개관하고 주변이 정비되면서 〈서대문독립공원〉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근대화, ‘역사 바로 세우기’, 도시 정비, 시민 복지 등의 과정에서 〈서대문독립공원〉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과거에 대한 경합하는 기억들 중에서 근대로의 열망과 일제에 의한 좌절을 표상하는 과거의 기억을 지배적(hegemonic) 기억으로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다.

2. 근대적 통제의 기제: 형무소와 역사관 그리고 축제

〈서대문독립공원〉이 위치한 서대문구 현저동은 근대국가의 지배체제와 권력의 근간인 폭력의 독점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 이유는 근대국가의 기본적 조건인 대외적 안보를 위한 폭력인 군대와 대내적 안정을 위한 폭력의 행사인 감옥이라는 두 가지 근대적 통제의 기제가 이 공간에 교묘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독립공원이 위치한 장소는 “고종 초(1864-1893) 30여 년간 훈련원과 모화관은 무과(武科) 시장(試場)이었다. 서울의 무의 장소였다.”³⁰⁾ 현재는 〈서대문형무소〉의 뒤편 담장에 솟아 있는 감시초소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사한 모양의 군부대 외곽 감시초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안보와 반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대한민국 근대의 또 다른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들에 의한 근대국가의 폭력성은 독립이라는 담론에 묻혀 있기도 하다.

근대적 통제의 기제라는 관점에서 역시 주목되는 것은 〈서대문독립공원〉 내의 시설 중 가장 잘 알려진 〈서대문형무소〉이다. 형무소는 근대적 권력이자 폭력의 상징으로서 감시의 테크놀로지와 몸의 통제 및 구속이

30) 김정동, 앞의 논문, 124쪽.

라는 훈육 시스템의 공간이다.³¹⁾ 〈서대문형무소〉 또한 이러한 감시체계인 원형감옥의 형태를 보여준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나 애국지사가 수감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많은 이들이 고초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 즉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형무소는 근대적 규율 기관의 장소로서 권력을 위한 통제와 복종의 장치로 활용된 것이다.³²⁾ 다시 말해, 식민주의로서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 폭력의 형무소는 식민시기 이후에도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공간이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서 몸의 통제로서 구속과 수감 그리고 감시를 수행하는 훈육의 공간은 권위주의 정부에게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는 〈서대문형무소〉의 수감자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권력자가 되었을 때에는 형무소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대문형무소〉가 형무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근대 권력의 폭력성이 개인들에게 강요되는 직접적인 통제의 기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형무소가 폐쇄된 후 남아 있는 현재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도 그러한 통제의 기능은 유효하다. 이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근대의 기억을 재현함과 동시에 대중들의 기억을 통제하는 문화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 〈서대문형무소〉가 대중들로 하여금 정치적 탄압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성역의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인식되게끔 한 배경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라는 박물관 건립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박물관은 교육, 계몽, 진보, 발전 등과 같은 근대성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박물관 설립의 주된 목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박물관과 같은 공적인 문화적 재현이 보여주는 기억은 특별한 당대의 가치와 지식을 생산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베넷(Tony Bennett)과 같은 학자는 이를 전시 복합체(the Exhibitionary Complex)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박물관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전시 내용을 스스로 내재토록 하며, 동시에 그러한 규범적 지식을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토록

31)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나남출판, 2003); 양병일, 앞의 논문, 65-71쪽.

32) 한홍구, 앞의 책, 123-125쪽.

한다고 주장한다.³³⁾ 이러한 관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설립 취지 및 목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98년에 개관한 역사관은 학생, 관광객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 공간으로서 계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전시복합체로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기억의 통제방법은 ‘독립’과 ‘민주’라는 가치가 경합하면서 공존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직접적으로는 ‘전시’의 형태로 나타나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둘러싼 여러 공간에서도 건물 및 조형물의 선택과 배치, 동선 등과 연관되어 제시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새로운 건물을 박물관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안과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문서, 영상 자료, 디오라마 등을 전시한 전시관과 더불어 옥사, 사형장, 격벽장 등 형무소의 여러 건축물과 공간 전체를 활용하고 있다.

우선 전시관은 역사실, 민족저항실, 지하고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물들의 내용은 주로 일제의 만행과 그에 저항하는 독립투사들에 대한 기억과 이에 대한 체험으로 제시된다.³⁴⁾ 하지만 역사관의 곳곳에 위치한, 독립 이후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민주투사들을 강조하는 전시물들도 주목된다. 옥사 복도의 양측에는 매년 선정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에 관한 전시물들이 진열되어 있다. 일련의 전시관 구성을 통해 관람객들은 ‘독립’과 ‘민주’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역사적’ 지식들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인 상품들에 대한 경제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역사관의 동선을 따라가면 맨 마지막에 기념품 판매장을 통해 출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은 국내의 유사 박물관과 비교하여 그 가짓수가 다양하고 상품성이 높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기존의 박물관과 비교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기념품들은 소위 ‘살 만한 것’들로 구비되어 있다.

결국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기억은 전시 규율이라는 동선을 따라 이어지게 되며, 이는 일종의 ‘상품 기억’으로서 다양한 기념상품을 통해

33) Bennett, Tony,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London: Routledge, 1995).

34) 양병일, 앞의 논문, 75-78쪽.

관람객들에게 기억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둘러보면서 그전에 가졌던 ‘엄숙함’은 잊어버린다. 전시관을 관람하며 쏟아냈던 과거에 대한 비판과 한탄의 목소리가 기념품 판매장에서는 찬사와 경탄의 구매행위로 바뀐다. 열쇠고리, 책갈피, 장식 소품 등과 같은 각종 기념품이나 문구류 등은 마치 팬시용품점과 같이 잘 정리 정돈되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머물며 물건들을 구경하고 구매하기도 한다. 이에 덧붙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 등의 촬영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기억이 문화 산업의 새로운 상품 기억으로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이처럼 소비주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강조하고 있는 과거의 희생자들에 대한 경건함과 기억들마저도 물신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역사관은 그 자체가 기억의 경합을 보여주는 공간이 된다. 역사관이 제시하는 볼거리와 살거리들은 그 ‘역사’라는 ‘지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역사관 혹은 전시물의 내용이 독립이건 민주건 간에 이들은 근대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역사관은 해당 공간이 그 용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근대의 기억을 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여전히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한 현재 구성원들의 인식을 통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근대적 통제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역사관 내에서 재현되고 있는 건물과 전시물들의 배치 그리고 상품의 진열 등과 같은 일련의 요소들은 근대성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형무소가 리모델링을 통해 박물관이 되었다는 점은 해당 공간의 표면적인 기능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대적 통제 기제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형무소로서 〈서대문형무소〉, 박물관으로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둘 다 공통적으로 대중들을 규율하였으며, 유순한 신체로 만들고, 그에 따른 지식과 질서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권력 작용을 수행한다.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또한 역사관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2010년도 1회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여섯 번째를 맞이한 독립민주축제는 〈서대문형무소역사

관)과 더불어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문화적 실천이다. “독립과 민주의 정신, 가치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는 공연, 전시,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립과 민주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고 있으며, 시기는 1회 11월 개최, 2회 10월 개최, 3·4회 9월 개최에서 2014년 5회와 2015년 6회에 이르러서는 8월 15일을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역사관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억의 통제 기제인 데 반해, 축제는 일시적이지만 집중적이고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근대의 기억을 강렬하게 각인시키기도 한다. 특히 축제가 개최되는 해당 시점에는 일상적인 독립공원이 비일상적인 유희의 공간이 된다. 역사관이 경건하고 교조적인 모습으로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 반해, 축제는 이를 일시적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으로 바꾼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를 통한 가수나 연예인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역사 콘서트’, 독립민주인사들의 ‘풋프린팅’ 등과 같이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와 유사한 체험 요소들이 많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유희를 가장한 의식과 제의의 공간임은 여전하다. 특히 ‘옥사 체험’이나 암호를 풀고 지령을 찾고 물총싸움을 하며 독립군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독립군 구출 대작전’ 등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스스로 참여를 통해 독립에 대한 기억을 내재토록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단지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재미를 통해 ‘독립 유희’에 대한 참여를 독려할 뿐이다. <독립민주축제>는 <서대문독립공원>의 ‘역사’를 현대적 제의로 전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재미 요소를 통한 관람객의 참여 증대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서대문독립민주축제>는 개최 장소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규모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축제 예산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에는 6,56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그 규모는 3회 약 2억 원을 기점으로 2014년에는 1억 6,600여만 원을 사용하였다. 참여인원 역시 1회 1,500여 명을 시작으로 2014년 제5회 축제에는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다.³⁵⁾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축제 개최일 또한 상징성을

표1- 〈서대문독립민주축제〉 개요

횟수	연도	일시	주제	예산(원)	운영인원 (직원, 자원봉사 포함)	참여 인원 (주민)
제1회	2010	11. 6	독립과 민주주의 정신, 가치공유	65,600,000	50명	1,500명
제2회	2011	10. 28-10. 29		105,200,000	50명	5,000명
제3회	2012	9. 15-9. 16		196,932,000	70명	10,000명
제4회	2013	9. 27-9. 8		174,034,000	80명	10,000명
제5회	2014	8. 15-8. 16		166,017,000	120명	61,878명
제6회	2015	8. 14-8. 15	광복70주년, 해방의 감격을 서대문형무소에서!	자료 미확보	자료 미확보	자료 미확보

출처: 서대문구 정보공개청구 자료(저자 요청)

강조하기 위해 광복절 전후로 정해지고 있다. 2014년에는 8월 15-16일, 2015년에는 8월 14-15일에 개최되어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표방하는 독립과 민주라는 가치 중에서 ‘독립’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대문독립공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³⁶⁾의 공간으로도 익숙하다. 〈서대문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60만 명이 넘는다. 다크 투어리즘이 상흔이 있었던 장소를 방문하여 교훈을 얻는 일종의 여행 상품이라는 점에 비추어 일본 관광객들도 그러한 목적으로 〈서대문형무소〉를 찾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대문형무소〉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건 일본 관광객이건 간에 대중들에게는 관람과 방문이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35) 특히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후 광화문 미사라는 조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6)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과 재앙의 장소를 실제 방문하는 상품이나 그러한 상업화의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중국의 난징대학살기념관, 미국 9·11 테러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과 나가사키 평화공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적지 등이 있다. 국내는 독립기념관, 제주 4·3 사건 평화공원, 국립 5·18 민주묘지,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을 들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은 기억이라는 과거에 대한 인식과 관광산업이 결합된 문화적 실천이며, 최근에는 ‘역사 유적 여행’이나 ‘역사 교훈 여행’ 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레저산업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Lennon, John and Foley, Malcolm,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2000); 태지호, 『기억문화연구』(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6쪽.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억은 앞서 언급한 기념품 판매와 더불어 관광이나 여행 등과 같은 여가활동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중들에게 과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과거를 둘러싼 맥락들은 망각된다.

일련의 논의는 결국 〈서대문독립공원〉이라는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점은 단지 어떠한 구성물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 외에, 그들 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과거가 어떻게 규정되고 특별한 내러티브로서 그것이 현재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서대문독립공원〉은 현재의 모습 이전에 형무소를 통해 폭력과 억압을 물리적 통제의 공간으로서 근대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한 축제, 관광 등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과거를 특별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기억의 통제를 통해 근대적 가치가 체화되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관광객과 일본 정치인들도 방문하는 〈서대문독립공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논쟁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정치·경제·문화적 실천이 공존하는 근대 기억의 공간인 것이다.

3. 근대와 공론장: '독립의 성지'를 둘러싼 기억투쟁과 정치적 실천

〈서대문독립공원〉은 일상의 공간으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 주민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등과 접해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와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대문독립공원〉은 고귀하고 경건한 목적을 가진 과거에 대한 기념 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며 일상적인 공간으로서 좀 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문〉이나 〈서대문형무소〉 등과 같은 다양한 상징물들은 〈서대문독립공원〉만이 가진 특별한 장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형무소〉 건물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여러 논의와 노력은 〈서대문독립공원〉이 일상의 영역에서 지역주민들 혹은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들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³⁷⁾ 다시 말해,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정경은 과거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및 증거가 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느껴지고 지각되는 이러한 정경들은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으로 기능한다. 이는 특히 국내의 여러 곳에 존재하는 과거를 되새기게 하는 기념관들이 일상의 공간과 다소 분리되어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서대문독립공원〉은 일상적으로 거주민이 통과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일상 속에서 과거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근대적 공간 의식이 나타나는 곳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대문독립공원〉은 현실 정치의 공간이기도 하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애초에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참여의 공간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 독립공원이 조성될 당시 공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시민들이 일주일에 1, 2회씩 시사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는 장소”로 만들기 위함이었다.³⁸⁾ 초기에 독립공원과 독립관은 근대적 계몽과 시민참여의 장으로서 활용되었다. 김정동에 따르면, “일진회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연설회’를 시행하기 위해 1905년 초, 독립관 좌측에 국민연설대(國民演說臺)를 만들었고, 그 건물 안에는 가히 1,000여 명의 방청자를 수용할” 정도의 규모였다.³⁹⁾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독립문〉은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문〉 위에 태극기가 걸린 것을 제외하고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은 미미하였다.

1990년대 〈서대문독립공원〉이 조성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위시로 한 독립공원의 상징성이 강화되면서 그 정치적 의미는 더욱 커졌다. 즉, 〈서대문독립공원〉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실천임과 동시에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의 정치 실천의 장이기도 하다. 이 공간을 독립의 공간으로 성역화를 추진한 구청장, 독립 담론에 민주 담론을 더한 구청장에서부터 대통령 후보, 시장, 국회의원 및 정당 정치인,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대 대통령선거

37)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문화재청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원형 복원과 역사자료 전시관 건립을 통해 서대문독립공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일보》, 2014년 2월 27일자.

38) 신용하, 앞의 논문, 95쪽.

39) 김정동, 앞의 논문, 123쪽.

후보였던 문재인은 자신이 수감생활을 하였던 〈서대문형무소〉를 배경으로 〈독립문〉 앞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하였다.⁴⁰⁾ 2015년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에서도 〈서대문독립공원〉은 친일과 대척되는 정치적 실천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⁴¹⁾

또한 〈서대문독립공원〉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실천의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의 여러 인사가 이곳을 방문하여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는 총리 시절 2001년 10월 15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바 있으며, 2015년 8월 12일에는 하토야마 전 총리 또한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일제의 과거를 사죄하였다.⁴²⁾ 이러한 일본 정치인들의 〈서대문형무소〉 방문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 아닌 그 자체가 정치적 실천이며,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 그리고 양국관계 및 나아가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따라서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협상 과정 및 타결 이후 정치적 갈등이나, 그동안 계속된 독도 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연관 지어 볼 때, 향후 〈서대문독립공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국제적 차원의 다양한 정치적 실천과 경합이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경합의 공간인 〈서대문독립공원〉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총 27건의 집회가 신고되었고, 총 신고인원은 11만 3,920명에 이른다. 물론 집회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성격, 참여단체, 규모, 내용 등은 〈서대문독립공원〉을 둘러싼 기억투쟁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정치적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현실 정치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경합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한겨레신문》, 2012년 6월 17일자; 《연합뉴스》, 2012년 6월 14일자.

41) 《연합뉴스》, 2015년 10월 24일자.

42) 《경향신문》, 2015년 8월 12일자.

표2- 〈서대문독립공원〉 집회 개요

연도	총 집회건수(건)	총 집회기간(일)	총 신고인원(명)
2010	1	1	1,500
2011	0	0	0
2012	4	4	9,100
2013	12	59	81,520
2014. 6. 30.	10	78	21,800
계	27	142	113,920

출처: 서대문구 정보공개청구 자료(저자 요청)

더 나아가 〈서대문독립공원〉 그 자체가 기억투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일제에 대한 저항 공간이라는 해계모니 담론과 이에 대한 도전은 〈서대문독립공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다. 200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⁴³⁾,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을 마련하려 하였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측은 서울시로부터 박물관 사업인가를 받고 2009년 3월 8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독립운동 관련단체들의 반대와 비용 부족으로 결국 공사는 무산되었다.⁴⁴⁾ 착공식 당시 ‘독립의 성지’인 독립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반대하는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10여 명은 무대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⁴⁵⁾ 김은경이 지적하듯, ‘순국선열’의 마땅하고 당연한 장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이 형성해온 “단일한 기억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불순한’ 시도에 대한 지배담론의 반응은 이렇듯 폭력적이고 히스테리적이었다.⁴⁶⁾ 이와 같은 상황은 ‘순국선열’들을 수난 당하였던

4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홈페이지(검색일: 2015. 10. 14).

44) 《경향신문》, 2009년 3월 8일자.

45)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12일자; 한홍구, 앞의 책, 117쪽 참조.

46) 김은경,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한국학연구』 제35집 (2010), 179쪽.

민중들과 격리시켜 영웅시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갈등은 〈서대문형무소〉가 “독립”만의 성지인가라는 점을 둘러싼 것이다. 〈서대문독립공원〉이 1992년 8월 15일에 개장하였다는 점은 애초부터 〈서대문독립공원〉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로 기억하라’는 점을 내포하였다. 또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역시 성역화 과정에서 “독립정신을 기리는 사적임을 고려하여 전시 범위를 1945년 8월 15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설정하였다.⁴⁷⁾ 1945년 이후 〈서대문형무소〉(해방 이후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로 명칭 변경)는 때로는 좌익인사, 우익인사(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점령 당시), 민주화 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잡범까지도 수감되었던 공간이다.⁴⁸⁾ 하지만 현재 〈서대문형무소〉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어, “인권” 및 “민주”를 억압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실재이자 그것의 표상인 감옥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게끔 한다.⁴⁹⁾ 예를 들어, 현재는 일제에 의한 끔찍한 고문을 재현한 부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은 고문 역시 해방 이후 같은 공간에서 이뤄졌음은 철저히 망각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폭력과 그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로 재해석되기에 〈서대문형무소〉의 상징은 반일에 너무 큰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독립”담론에 “민주”담론을 덧붙이려는 시도가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담론은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배적 기억으로서 “독립”을 지키려는 보수진영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⁵⁰⁾

마지막으로 보다 넓게 보았을 때,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차지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과도한 상징적 위치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독립문〉 건립 당시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 1896년 6월 20일자 사설에 따르면, “[이 문은 모든 구주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이 전쟁의 폭력으로 열강들과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선의 위치가 극히 중요하여 평화와 휴머니티와 진보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며, 조선이 동양열

47) 이정규, 『나의 꿈 나의 삶 서대문과 더불어』(기파랑, 2004), 30쪽.

48) 김백영, 「상징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발명: 서울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장소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제28호(2007), 191쪽.

49) 한홍구, 앞의 책.

50) 《머니투데이》, 2014년 12월 11일자.

강 사이의 중요한 위치를 향유함을 보장하도록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다.”⁵¹⁾ 하지만 평화와 휴머니티와 진보의 이익을 상징하는 〈독립문〉과 독립관의 위치는 〈서대문형무소〉라는 보다 강력한 상징에 의해 억눌려 있다. 특히 서재필과 독립협회, 〈독립문〉 등을 둘러싼 친미·친일본쟁들은 이러한 일제에 항거하였던 〈서대문형무소〉의 헤게 모니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쾨스테르(Koen de Ceuster)는 일제로부터의 독립투쟁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독립공원의 반대편에 위치한 〈독립문〉을 “격리”된 채로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한다.⁵²⁾

IV. 맺음말: 근대의 기억 표상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기억의 중심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함께 광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기념에는 기록성과 시간성 그리고 장소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고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서대문독립공원〉은 영은문주초, 〈독립문〉, 서재필 동상, 독립관, 3·1 독립선언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어울쉼터/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실체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19세기 말 형성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서대문독립공원〉을 한국의 다양한 근대성이 형성, 발현되고 투영된 경합하는 공간으로 다루었다. 즉, 〈서대문독립공원〉은 근대로의 열망, 근대의 통제, 근대화 에 의한 파괴 및 건설, 기억의 부활과 공간의 재생이라는 근대적 현상과 기억의 경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서대문독립공원〉이 제시하는 가치들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로의 열망은 사대주의와 전근대적인 가치로부터 그리고 식민주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독립관과 〈독립문〉의 설립으로 표상된

51) 신용하, 앞의 논문, 82쪽에서 재인용.

52) Ceuster, Koen de, *op. cit.*, p. 86.

다. 이후 근대적 통제는 두 가지로 표상되는데,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서대문형무소〉이며, 다른 하나는 해방 이후 〈서울구치소〉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다. 이러한 근대적 통제는 반(反)식민주의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민주 혹은 반독재의 가치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근대화에 의한 파괴 및 건설은 3·1독립선언기념탑이나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철거 및 복원으로 표상되며,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잘 갖춰지고 짜여진 현재의 〈서대문독립공원〉은 기억의 부활과 공간의 재생, 그리고 상업주의의 가치가 점철된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지역축제와 박물관의 활성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뿐만 아니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혹은 〈서대문독립공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기억의 충돌에 의해 표상된다. 요약하면 〈서대문독립공원〉은 구한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반봉건, 반식민·해방·독재·민주·산업화·분권화·자본주의 등 일련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소환되고 보존되는 장소인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서대문독립공원〉을 통해 우리의 ‘근대’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서울 시내의 거대한 녹지를 포함한 공원이자 근현대의 기억을 구성하고 규정하는 공간이다. 〈서대문독립공원〉은 단지 지역민의 관점에서 ‘공원’으로만 여겨질 수 없으며, 동시에 ‘형무소’라는 억압의 장소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일련의 건물, 사물, 상징적 행위, 다양한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서대문독립공원〉은 정치적·문화적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한국 근현대사의 다양한 기억과 더불어 그러한 기억에 대한 평가까지 담아내고 있는 증거로서의 공간인 것이다. 〈서대문독립공원〉은 그동안의 주류 역사 혹은 지배 담론에 의해 알려지거나 강요된 것과 달리 다양한 기억을 담고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우리의 ‘역사’의 정경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자원이자 다양한 정치경제적인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조되거나 망각되는 과거들도 존재한다.

결국 이 글은 과거에 대한 자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 개념을 통해 다루고 있다. 즉, 그러한 기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서대문독립공원〉을 둘러싼 정치적·문화적·경제적인 지형도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기억하는가’와 더불어 ‘어떻게 기억하는가’이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이 글은 <서대문독립공원>의 역사 혹은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있는 다양한 유적들의 역사적 가치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평가 그 자체를 권력 논리와 연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그러한 검토의 전제를 공간과 장소의 재현이라는 관점에 두고 <서대문독립공원>에 다양한 상징과 문화적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요소들은 물론이고 <서대문독립공원> 자체가 특별한 담론적 실천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서대문독립공원>은 고정된 의미로서가 아닌 의미화의 과정 중에 있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백영, 「상징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발명: 서울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장소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8호, 2007, 188-221쪽.
- 김백영·김민환, 「학살과 내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 거창사건추모공원의 공간 분석」. 『사회와 역사』 78집, 2008, 5-33쪽.
- 김세민, 「迎恩門, 慕華館의 건립과 獨立門, 獨立館으로의 변천」. 『향토서울』 82권, 2012, 141-178쪽.
- 김은경,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한국학연구』 35집, 2010, 177-203쪽.
- 김정동, 「심의석이 세운 독립문과 독립관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 109-126쪽.
- 김태중, 「개화기 궁정건축가 사바전에 관한 연구 고용경위와 경력 및 활동환경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12권 7호, 1996, 107-119쪽.
- 김형곤,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0호, 2007, 192-220쪽.
- 류현중, 「역사적 장소 학습과 과거 기억의 문제 - 초등학교들의 역사적 장소 재현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2호, 2005, 177-219쪽.
-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 나남출판, 2003.
- 손은하·공윤경, 「상징 조형물과 상징공간에 이미지화된 지역성 - 마산의 '민주화의 성지'와 '문학의 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7호, 2010, 419-446쪽.
- 신용하,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의 건립과 변천」. 『향토서울』 59권, 1999, 77-105쪽.
- 양병일, 「서대문형무소의 상징 읽기」. 『사회와 교육』 45권 4호, 2006, 59-82쪽.
- 여문환,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한·중·일 전쟁기념관을 가다!』. 한국학술정보, 2009.
- 원도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회성과 기념공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1호, 2007, 261-288쪽.
- 이은지·조철호·박해정, 「다크투어리즘 서비스경험이 방문객의 방문효과, 민족에 관한 연구-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5권 7호, 2012, 2999-3018쪽.
- 이정규, 『나의 꿈 나의 삶 서대문과 더불어』. 기과량. 2004.
- 정호기, 「전쟁 상흔의 치유 공간에 대한 시선의 전환」. 『민주주의와 인권』 8권 3호, 2008, 183-212쪽.
- 최정기, 「5·18기념공간과 사회적 갈등-기념공간 관련 논쟁 및 갈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8권 1호, 2008, 51-78쪽.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태지호·정현주,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을 통해서 본 한국전쟁의 기억과 정치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8집 4호, 2014, 297-317쪽.
- 한홍구, 『한홍구와 함께 걷다』. 검등소, 2009.
- 허버트 허시 저, 강성현 역,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책세상, 2009.
- Bennett, Tony,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1995.
- Bruno, Giuliana, "Havana: Memoirs of Material Culture." *Journal of Visual Culture*, Vol. 2, No. 3, 2003, pp. 303-324.
- Ceuster, Koen de, "The Changing Nature of National Icons in the Seoul Landscap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3, No. 2, 2000, pp. 73-103.
- Dickinson, Greg, Carole Blair, and Brian L. Ott, *Places of Public Memory: The Rhetoric of Museums and Memorials*. Tuscaloosa: University Alabama Press, 2010.
- Lennon, John. and Foley, Malcolm,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2000.
- Phillips, Kristina Kate, *A Museum for the Nation: Publics and Politics at the National Museum of India*.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2006.
- Rowe, Shawn M., James V. Wertsch, and Tatyana Y. Kosyaeva, "Linking Little Narratives to Big Ones: Narrative and Public Memory in History Museums." *Culture and Psychology*, Vol. 8, No. 1, 2002, pp. 96-112.
- Thomas, Nicholas, *Entangled Objects: Exchange, Material Culture, and Colonialism in the Pacific*.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국 문 요 약

이 글은 〈서대문독립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근대의 기억을 다루고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같은 역사 유적, 기념물,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서대문독립민주축제〉의 장소이며, 지하철역, 시민편의시설 등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이 글은 그 공간적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서대문독립공원〉이 어떠한 정치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화의 과정을 거쳐 오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억’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자 형식이며 학제 간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실천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이 글은 〈서대문독립공원〉을 근대로의 열망, 근대의 기제, 근대와 공론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서대문독립공원〉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대문독립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담론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독립공원에는 근대에 관한 다양한 실천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서대문독립공원〉은 역사에 장악된 기억과 현재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뒤섞히면서 끊임없이 재맥락화되고 있는 기억의 장소임을 보여준다.

투고일 2015. 12. 18.

심사일 2016. 2. 11.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서대문독립공원(Seodaemun Independence Park), 서대문형무소(Seodaemun Prison), 서대문형무소역사관(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독립문(Independence Gate), 기억의 정치학(politics of memory)

Abstracts

〈Seodaemun Independence Park〉 as Memory Symbol of Modernity: Aspiration for Modernity, Control Mechanism, and Site of Political Contestation

Jung, Heon-joo · Tae, Ji-ho

This paper examines memory of modernity represented in 〈Seodaemun Independence Park〉. 〈Seodaemun Independence Park〉 is a site where historic monuments and museum such as 〈Independence Gate〉, 〈Seodaemun Prison〉,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are located and 〈Independence and Democracy Festival〉 takes place every year.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how the site has been historically developed, transformed, and made its meaning in the changing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s. From a perspective of “memory” as a cultural practice, it argues that the site surrounding 〈Seodaemun Independence Park〉 represents multiple modernities: aspiration for modernity and modernization; modern control mechanism; public sphere of political struggle. This paper examines ‘historical facts’ about the park as well as developments of various discourses surrounding it. It finds that various practices regarding modernities coexist in this place which is constantly re-contextualized with memory preoccupied with history and political-economic interests having been intertwined.

